

대만 대학교육의 특징과 개혁방향: 특성화 및 자율화 확대

최 관 장

한국외대 중국어과 교수



1. 머리말

대만의 대학교육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거쳤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왜곡되었다. 일제시대의 대만에는 대만제국대학과 4개 기술단과대학이 있었을 뿐이며 농업, 토목, 의학 등 몇몇 분야의 전공만이 허락되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제가 반식민지 정치활동에 쓰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세계 주요 대학의 변화와 동향

1. 도쿄 대학의 대학원
중점화와 학부교육 개혁
2. 미국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 개혁
3. 대만 대학교육의 특징과
개혁방향 : 특성화 및
자율화 확대

의 습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의 진정한 대학교육 역사는 1949년 장 제스 정부의 대만 이주 후부터 시작

된다.

이 글에서는 대만 대학교육의 역사적 회고를 통해 그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학교육 개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위기에 처한 한국 대학교육 현실의 파악과 진로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대만 대학 교육의 역사

1949년, 중국 본토에서

패배한 후 대만으로 이주한 장 제스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민 교육의 소홀’을 지적하고, 교육의 확대에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동시에 상급학교 진학에 강력한 경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70년대 말까지 각급 학교의 총수는 3배 이상, 학생수는 4배 이상이 늘었다.

교육기관과 학생수의 증가는 대만 정부의 교육 기회 균등정책 및 학부모의 교육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 기회 확대도 그러려니와, 특히 교육이 일종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일반 대중의 인식, 즉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특히 대학 진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실제로 일류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당연히 보장되고 출신학교에 따라 대우도 달라진다.

1949년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국·공립 위주로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당 간부 양성학교였던 政治大學이 臺北으로 옮겨왔고 이공 계통의 명문인 清華大學도 대만에서 복원되었다. 이밖에 전 대만제국대학과 전 대북의학전문학교, 그리고 전 대북고등 상업학교를 합병해 臺灣大學으로 개명, 개교하였으며, 남부 臺南에 이공 계통 중심의 成功大學, 중부인 臺中에 中興大學을, 그리고 대북과 최남부 高雄에 사범대학을 개교하였다. 또한 사학도 크게 발전하여 지역별로 특성을 지닌 東海大學, 東吳大學, 輔仁大學, 淡江大學, 大同工學院 등 많은 사립대학들이 생겨났다.

이들 대학은 모두 대만이 중국 본토와의

대립기에 설립된 관계로 상당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반면에 교육을 중시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거의 모든 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충분한 도서관 설비 및 풍부한 교수진을 갖추게 되었다. 학비도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학교도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무료였을 뿐 아니라 기숙사도 매우 저렴한 실비로 제공되었다.

학생 모집은 1960년대 초반에 우리의 예비고사나 수능시험 같은 일률적 시험에 의해 성적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순서대로 입학하는 선지원·후시험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당연히 서열이 매겨지게 되었고 어느 나라보다 더한 입시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99%이며, 이들의 82%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3. 대만 대학교육의 특징

대만의 대학교육은 그 정책이나 지원, 그리고 각 대학의 발전 방향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대만의 대학은 우리처럼 모든 과를 망라한 백화점식 대학이 아니고, 학교별 특성이 아주 뚜렷하다.

우선 대만대학은 문학, 사학, 철학, 그리고 의학, 농업 계통이 특화된 대학으로 기초 인문과학이 강세를 보이는 전통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新竹 시에 위치한 청화대학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고서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동시에 일류 교수들을 많이 데려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만 중부의 문화도시 臺中에 있는 中興大學은 농업, 임업, 식물 등 전문 분야에서 대만의 농업 개혁과 농업 발전을 주도한 명문대학이다. 현재는 대북에 법학과 상학부를 설립하여 사회과학에도 진출하였다. 현재 대만의 상공부, 무역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이 곳 출신이다.

정치대학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치외교 분야를 비롯한 사회과학이 특화된 대학이다. 초대 교장이 장 제스 전 총통일 정도로 대만의 직업관료와 외교관을 배출하는 산실이다.

이러한 특성화 추세는 1980년 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에 생기기 시작한 많은 대학들이 우리의 단과대학 형태로 설립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이미 1960년대부터 대학원 위주의 대학 체제로 발전시킨 점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의 뚜렷한 특성화는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용이하였으며, 이는 국·공립 대학을 위주로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 특히 대학원 전임교원 제도를 실시하여 교수진의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대학원생들의 학비는 무료이며, 직업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助學金이 '90년대 초까지 지급되었다. 심지어는 학위논문 경비까지도 국가가 지원하며, 우수 논문은 국가가 판권을 사서 출판해 주기도 하였다.

셋째, 충실한 학사 진행과 강의를 꼽을 수 있다. 대만의 대학에서 휴강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설사 휴강을 한다 해도 반드시 보강이 뒤따른다. 물론 학생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거의 35시간을 수업하며 수시로 시험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업량

〈표 1〉 국민총생산 및 예산에서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구분	연도	(단위: %)	
		교육경비 / 국민총생산	교육경비 / 예산
대만	1996	5.6	19.5
중국	1993	1.9	12.2
일본	1993	4.8	16.6
한국	1995	4.2	16.1

* 자료: 教育部(臺灣) 編, 『中華民國教育統計指標(1998)』, 67쪽.

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토론식 수업이 학부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사 행정 관리도 아주 엄격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넷째,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점이다(〈표 1〉 참조). 대만의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교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원의 대우도 괜찮은 편이다. 특히 강사에게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강사가 교육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원에게 강의 이외의 부담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학문 분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문의 선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만 정부의 교육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학생 우대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회 편의시설의 이용시 학생 할인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하계·동계 방학기간 중에는 국민당의 청년단체인 청년구국단을 이용, 거의 무료로 많은 활동에 참여시켜 국가와 학생의 일체감

을 고양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는 정부의 고위 관료나 행정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정책을 설명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제도가 학생들의 반정부 색채를 약화시키는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비판받고 있기는 하나, 풍부한 과외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 학

문적 성과를 가지고 귀국하여 대학 강단에 서서 후학들을 가르침으로써 국제적 학문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대만 내 대학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만의 대학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들이다. 그러나 대만의 대학들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며, 최근 대만 내의 교육 개혁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대만 국·공립 교원의 보수 현황(1998)

(단위: 원급, 대만 원)

급 별 호 봉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강 사	조 교	초·중 교사
770	99,680					
740	99,075					
710	98,465	89,695				
680	96,640	87,870				
650	95,425	86,655	81,190			
625	94,210	85,440	79,975	71,925		72,100
600	92,995	84,225	78,760	70,710		70,885
575	91,780	83,010	77,545	69,495		69,670
550	90,560	81,790	76,325	68,275		68,450
525	89,345	80,575	75,110	67,060		67,235
500	88,130	79,360	73,895	65,845		66,020
475	86,915	78,145	72,680	64,630		64,805
450		75,710	70,245	62,195	54,000	57,440
430		74,800	69,335	61,285	53,090	56,530
410		73,890	68,425	60,375	52,180	55,620
390		72,975	67,510	59,460	51,265	54,705
370		72,065	66,600	58,550	50,355	53,795
350		71,150	65,685	57,635	49,440	52,880
330			64,775	56,725	48,530	49,080
310			63,865	55,825	47,620	48,170
290				54,900	46,705	47,255
275				53,990	45,795	46,345
260				53,075	44,880	45,430
245				52,165	43,970	44,520
230					43,060	40,820
220					42,450	40,210
210					41,840	39,600
200					41,235	38,995
190						38,385

* 1998년 7월 현재 대만화 1원 = 한화 45원.

** 자료 : Ministry of Education(Taiwan),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China(1998)*, p.26.

4. 대만 대학교육의 문제점

대만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대학 내부의 문제보다는 대학 입학에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수십 년간 대만의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단발 연합고사의 폐해를 들 수 있다.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내세우며 시작된 연합예비시험은 일류병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의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명문 유치원을 선호하고, 모든 것을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 치열한 경쟁사회로 들어간다. 당연히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게 된다. 단발 연합고사는 수험생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대학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도 있거니와, 특수 재능의 발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유약한 사회성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20세가 되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대만의 병역제도는 입시 실패를 만회할 시간을 적어도 2~3년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들의 대학 진학에 자신이 없는 많은 부모들이 출국이 허락되는 15세 이전에 해외로 나간다. 이러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여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또한 일류병은 경제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습반이라는 이름의 과외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일류 대학에 입학한 엘리트들이 해외로 유출된다

는 점이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명문대학 출신들의 70%가 미국 등 해외로 건너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석사 정도의 과정을 마친 엘리트들은 미국의 대학, 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취업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5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 대만으로서의 두뇌집단의 이러한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골치거리다.

이러한 이유로 초일류 명문대학 졸업생의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 나간 나머지를 그 다음 그룹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층 고생해서 키운 대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셋째는 이러한 입시제도의 결과로 대학 진학 이후의 학문적 성과나 인간적 성숙이 무시되는 서열사회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만의 대학은 동일한 시험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과별로 순위가 공식적으로 매겨진다. 또한 각종 신문, 잡지 등도 공공연하게 학교별 순위를 발표하기도 한다(〈표 3〉 참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계층간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구조적 갈등을 안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공부 행태가 팽배하여 대학 진학 이전의 학습이 대학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단점도 안고 있다. 누구나 영어, 수학을 다 잘해야 하며 이러한 기초과목에 재주가 없는 학생들은 사회의 출발에서부터 2류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대학 내부의 학문적 분위기 역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정치적 요인과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주도형의 교육관으로 인하여, 제한된 연구 주제와 경색된 교육행정이 지배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학문 영역에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표 3〉 대학들의 학술 명성도(대만 상위 10개 대학)

전체 순위	대 학 명	3종 평균득점	과 정		교 수 자 질		학 생 자 질	
			득 점	순 위	득 점	순 위	득 점	순 위
1	清華大學	4.31	4.37	1	4.40	1	4.16	2
2	臺灣大學	4.27	4.05	2	4.25	3	4.52	1
3	交通大學	4.14	3.99	4	4.31	2	4.13	3
4	成功大學	4.07	4.03	3	4.16	4	4.01	4
5	政治大學	3.81	3.75	5	3.74	9	3.94	5
6	陽明大學	3.76	3.66	7	3.89	5	3.73	7
7	中山大學	3.73	3.70	6	3.87	6	3.63	8
8	臺灣師範大學	3.69	3.64	8	3.64	11	3.80	6
9	中正大學	3.66	3.62	9	3.81	7	3.55	10
10	中央大學	3.63	3.57	10	3.75	8	3.58	9

* 자료 : 「中央日報」(臺灣), 1998년 6월 4일자.

교육 행정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의 대학 교육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단점의 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5. '90년대 대만 대학의 개혁 방향

대만 정부, 특히 대만의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초 분야에서부터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 교육부의 시도와는 별개로 대학 당국과 교원들은 민주화의 각도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 둘의 융화가 대만 대학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미 '80년대 초부터 세계는 국제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특히 1987년 장징궈 총통의 사망과 함께 찾아온 대만의 민주화 열기는 대만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이어서 많은 대학들이 자구책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비도 과거의 무상에서 학기당 약 2만 원(한화 8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며, 많은 지원이 중단되었다. 물론 다른 국가보다는 아직도 우월하지만 이제 대만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적 장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기존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기존의 대학 특성화와 대학원 중심 대학의 기초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학의 특화를 과학기술 제통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과학기술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대만내 명문대학의 기초이론 학과의 성적이 크게 부진하자, 국가 과학이론 연구센터를 설립해 대학의 기초이론 학과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초이론 학과뿐 아니라 실용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대만의 언론에 의하면, 이를 위해 대만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100억 원(한화 약 4,00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

으며, 이 장려기금은 '99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는 모두 대만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즉, 이제는 과거의 대학에 대한 학교별 직접 지원에서 분야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과만이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위해 '9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의 제2외국어 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대학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부하고 있다. 이는 몇몇 입시 과목에 제한된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에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관례에 따르면 학문적 성과의 유무에 관계 없이 해당 교원의 임용에 교육부의 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국립 대만대학은 일부 학과이기는 하지만 공개 강의 등을 통해 학문적 소양을 위주로 교수를 채용하여 필요한 교원을 충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만내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대학 자주권의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교육부의 행정 명령이나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던 과목 조정 등이 자주권 확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만내 대학의 공통 필수과목인 군사훈련 과목(과거 우리의 교련 과목)과 관련하여 위헌 논의가 제기되고, 학과 증설문제 등에 대한 대학 자율성이 강조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만 교육부는 학내 자유화나

대학 자율의 확대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의 조정과 조절 능력을 향후에도 계속 행사하려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부의 통제를 덜 받는 사립대학은 지속적으로 학비 자율화, 학과 증설 등을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만의 대학교육은 기존의 입시체제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교육 당국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다원화 사이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

한국 대학교육에의 시사점

대만의 대학교육 현황은 우리와 그 출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우선, 대만의 대학 특성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다.

한국의 대학이 위기에 빠진 것은 교육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방만한 학교 규모의 확대가 큰 원인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모 대학 하면 무슨 과'라는 특성화가 나름대로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소위 소수 명문대가 모든 학과를 성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과거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한 고등학교 평준화가 오히려 소수 상위그룹 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으로 이어져 획일성을 한층 가열화하고 있다. 모든 대학의 전 학과가 모

두 우수할 수 없다면 과감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조령모개식의 정책 변화는 사회적 기회 비용의 무절제한 증대를 갖고 오게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마치 유행처럼 특정학과의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지원하는 양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특성화와 더불어 학문적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연구 중심대학이지만, 이보다도 대학원 중심대학의 이행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최근 대학원 중심대학의 논의가 활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급조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 대학의 국제대학원의 실태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대만의 교육체제가 비록 소수 엘리트층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반면에 대

만의 중소기업 위주라는 경제구조의 특성상, 특화되어 있는 소규모 대학(주로 산업대학)들의 졸업생 취업률도 상당히 높다. 이는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쓴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향후 한국이 지방대학 육성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특성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대만뿐 아니라 선진각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학교육 체제를 백년대계의 미래관을 가지고 설정해 내야 할 것이다. ▲

최관장/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대 중국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 대학 중국문제연구소장, 동양학대학장 등을 역임했고, 중국 상해 복旦대학에서 1년간 한국학 강의를 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三民主義統一中國可行性研究』, 『兩岸互動與中國統一關係』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